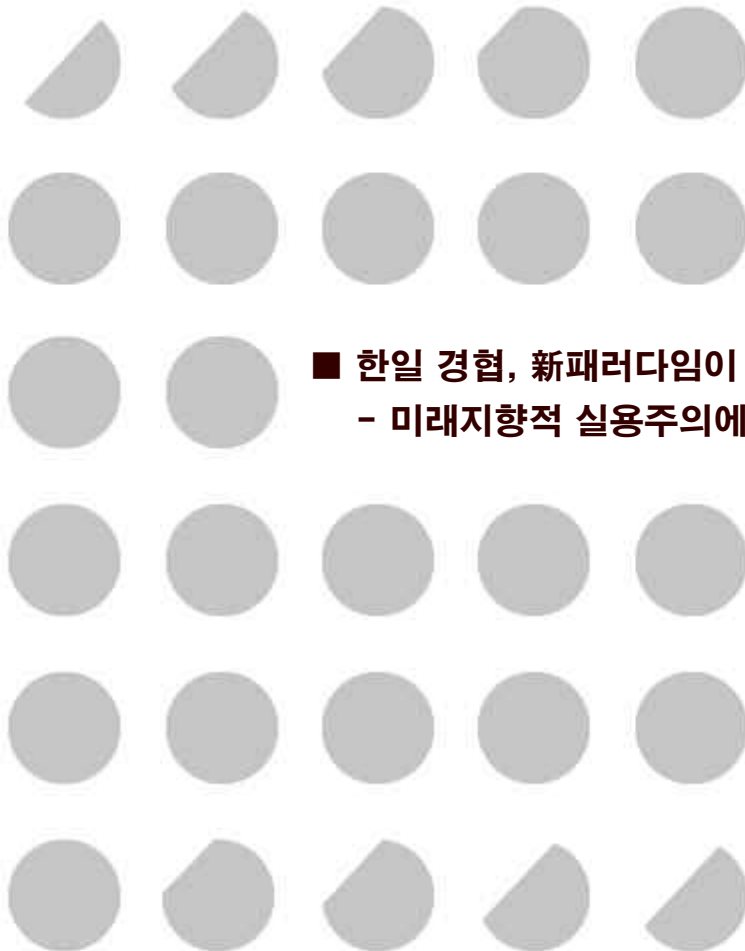




08-14 (통권 292호)
200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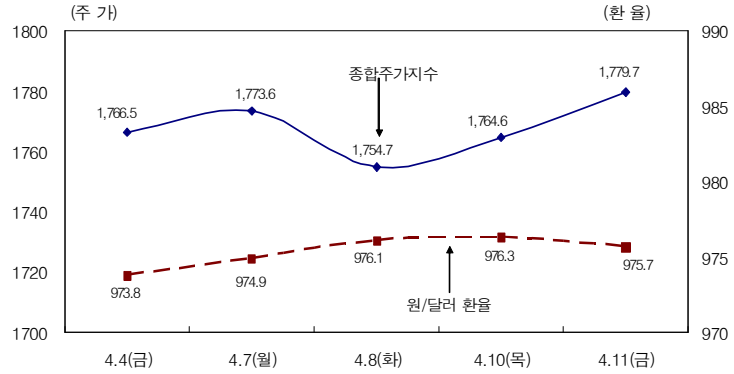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한일 경협, 新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의한 新한일관계 정립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4~4.11)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한일 경험, 新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의한 新한일관계 정립 1
- 주간 경제 동향 11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급등세 지속 11
 - 금융 부문 : 국채 금리 급락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신산업 연구실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일 경협, 新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의한 新한일관계 정립

1. 한일 교류의 추이와 문제점 (시기별 특징)

한일 교류는 제1기(1965-1980년)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기'와 제2기(1981-1993년) '무역역조 심화기'를 거쳐 제3기(1994년 이후)인 '경제 교류 침체기'에 봉착해와 있다.

제1기는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기(1965-1980년)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냉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다. 제1기 동안 양국 간 연평균 교역량 증가율은 30.6%로 제2기 11.2%, 제3기 10%에 비해 훨씬 빨랐다. 또, 산업 기술면에서 일본과의 교류도 이 시기가 가장 활발했는데, 1980년까지 전체 기술 수입 가운데 대일 수입 비중이 31.2%로 제2기 30.3%, 제3기 19.7%보다 높았다. 더욱이 1965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對韓 투자가 급증, 제1기 동안 전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1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투자 비중은 58%(9.9억 달러)에 달했다.

제2기(1981-1993년)는 한일 양국 간 교류는 한국의 대일 기술 및 자본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무역역조 심화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대립이 부각되었다.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양국 간 교류 제1기 말인 1980년 29.3억 달러에서 1993년 84.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무역역조 확대의 근본 원인은 대일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데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대일 기술 도입 규모 또한 급상승하였다.

제3기는 교류 침체기(1994-2007년)로 이 시기는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한일 FTA 표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침체된 시기였다. 특히, 2003년 12월에 예비협상이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채 2007년 말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한일 FTA가 표류 상태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대립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로 양국 간 정치외교적 협력 기반이 약화되었다.

(성과와 문제점)

지난 42년간 한일 양국 간 교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양적인 교류 규모가 그동안 급증하였다. 1965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이 약 40년이 지난 2007년에는 826억 2천만 달러로 약 376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대일 무역역조 현상의 심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감소, 산업기술협력의 약화, 한일 FTA 표류,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불신 고조,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의 약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대

일 무역역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65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일 무역역조 규모가 2007년에는 298.8억 달러로 약 230배나 증가하였다. 둘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對韓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1973년 92.5%에서 1985년에는 68.4%, 1994년 32.5%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는 18.8%까지 하락하였다. 셋째, 양국 간 기술교류가 약화되었다. 한국의 전체 기술수입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1977년까지 51.9%에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995년에는 35.7%까지 하락하였으며 2006년에는 10.6%에 불과하다. 넷째, 한일 FTA가 표류하고 있다.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 교섭은 일본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 개방, 한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분야가 쟁점화되면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채 2007년 말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불신이 고조되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등학교교과서 검정 문제, 독도 문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진 등 민족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국 간 정치 외교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 세대교체, 한일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경제인 교류 약화, 양국 간 기술 협력 약화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술 인력 교류의 약화가 이의 주요 원인이다.

2.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패러다임의 형성

향후 양국 교류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한일 양국 경제의 상호 번영의 추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양국이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상호 시장 규모 확대 지향형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는 많은 시장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근본 원인인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부품소재협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양국 간 부품소재에 있어서의 기술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국 부품소재 분야의 표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한일부품소재협력특구'를 양국 모두 조성함으로써 양국 간 부품소재 기술, 인력, 투자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한일 간 경제 현안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단계적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시장의 통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나 농업분야와 같은 상호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단계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통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양국 간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층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양국 대학산 공동연구의 활성화, 학점 상호 인정 제도의 확산 등 교육 부문에 있

어서의 교류 확산이 필요하다. 또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산을 위한 펀드 조성, 문화투어프로그램 도입 등 청년층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또한 시급하다.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교류 프로그램의 추진,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기술인력 교류 인프라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북아 긴장 완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일 양국의 대북 경제 협력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대북경제협력채널’을 구축, 대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공조 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칭 ‘한일 대북 경협 펀드’를 조성하여 양국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개인 투자자 등의 참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남북한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일 양국이 최근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대립으로 양국 간 교류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공통의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공통의 역사관 정립을 위한 공동 역사 연구 및 결과의 홍보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공통의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양국 간 협력을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킴으로써 아시아 역내에서의 공통의 역사관 정립이 가능하도록 ‘아시아 역사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3.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한일 양국 간 교류의 새로운 장 마련을 위해서는 이번 이 명박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양국 간 ‘미래실용주의 선언’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 간 민족주의에 입각한 교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공동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 단계적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시장의 통합 기반 조성, 인적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는 양국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한일 양국이 가칭 ‘미래한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의 공통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신대와 원폭 피해자 문제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교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래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데 과거사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적 차원의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대립을 회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2002년 7월) 합의된 역사연구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은 가칭 ‘동북아 미래 포럼’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 FTA,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 동북아 통화 협력과 같은 과제들을 ‘동북아 미래 포럼’에서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 한일 경험, 新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한일 경제
교류 현황

- 제1기(1965~1980) :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
- 제2기(1981~1993년) : 대일 무역역조 심화기
- 제3기(1994년 이후) : 경제 교류 침체기

당면
문제점

대일 무역역조 현상 심화	- 42년 동안 약 230배 증가 · 1965년 1.3억 달러 → 2007년 298.8억 달러
일본의 對韓 투자 비중 감소	-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 감소 · 1973년 92.5% → 1994년 32.5% → 2006년 18.8%
양국 간 기술 교류 약화	- 전체 기술수입 가운데 일본 비중 감소 · 1962-1977년 51.9% → 1995년 35.7% → 2006년 10.6%
한일 FTA 표류	- 2004년 11월 이후 교섭 중단 · 한국 : 중소기업 분야 쟁점화 · 일본 : 농업분야 쟁점화
정치·외교적 불신 고조	- 역사 문제로 긴장 지속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등학교교과서 검정 문제, 독도 문제 ·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진
협력 네트워크의 약화	-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 · 한일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경제인 교류 약화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패러다임
형성

목표와 전략	- 한일 양국 경제의 상호 번영 추구 ·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 확대
주요 과제	-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 시장 규모 확대 지향형 경제 협력 체제 구축 · '한일부품소재협력지원단' 구성 · '한일부품소재협력특구' 조성 - 단계적 시장 개방 · 상호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추진 -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 대학 간 공동연구 및 상호 학점인정 제도 활성화 · 청년층 교류 확산을 위한 펀드 조성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추진 - 대북 경제 협력 강화 · 정부 간 대북 경제 협력 채널 구축 · '대북 경험 펀드' 조성 - 공동의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 · '아시아 역사문제연구회' 조직 및 활성화

정책
제언

- 방일 기간 동안 양국의 경제 상호 번영 추구를 위한 기본 합의 도출 요망
- ① 양국 수뇌의 '미래 실용주의' 선언
- ② '미래한일위원회' 구성 및 '역사연구회의 활성화'
- ③ '동북아 미래 포럼' 구성

1. 한일 교류 추이와 문제점

○ (침체기에 돌입한 한일 교류) 한일 교류는 제1기(1965~1980년)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기와 제2기(1981~1993년) 무역역조 심화기를 거쳐 제3기(1994년 이후)인 교류 침체기에 있음

- 제1기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기(1965~1980년)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냉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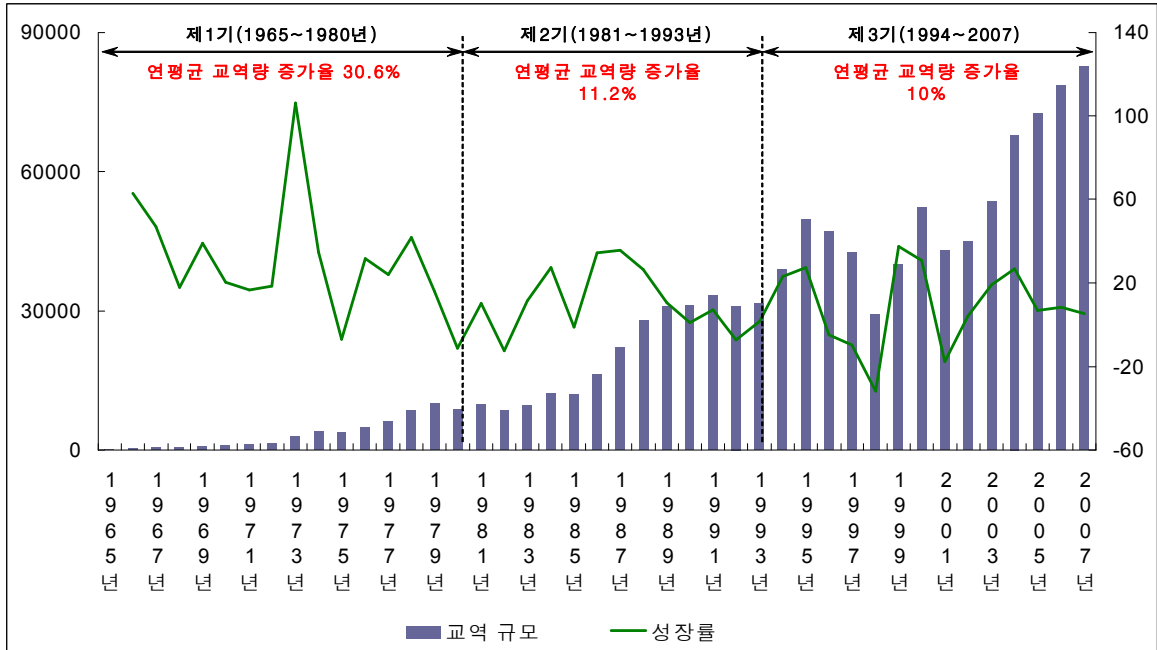
- **교역량의 급증** : 제1기 동안 양국 간 연평균 교역량 증가율은 30.6%로 제2기 11.2%, 제3기 10%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임
- **일본 기술 유입 가속** : 산업 기술면에서의 일본과의 교류 또한 이 시기가 가장 활발했는데, 1980년까지 전체 기술 수입 가운데 대일 수입 비중이 31.2%로 제2기 30.3%, 제3기 19.7%보다 높았음
- **일본의 대한 투자 급증** : 1965년 이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 제1기 동안 전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17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투자 비중은 58%(9.9억 달러)에 달함

< 한일 교류 추이 >

구 분		제1기 산업경제교류 활성화기	제2기 무역역조 심화기	제3기 교류 침체기
시 기		1965-1980년	1981-1993년	1994년 이후
양국 주요 수뇌	한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일본	타나카 카쿠에이 (田中角榮)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宗根康弘), 타케시타 노보루 (竹下登), 미야자와 키이치 (宮澤喜一)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熙),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山富市), 코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경 제		· 기술, 자본, 교역 교류 활성화	· 대일 무역수지 적자 심화	· 대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양국 간 경쟁 심화 · 한일 FTA 표류 · 양국 간 인재 교류 침체
정치·외교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 한미일 공조 강화	· 한미일 공조 지속	· 민족주의 대립 심화
북일 관계		· 냉전 하의 대립 지속	· 북일 수교협상 추진	· 북일 상호 불신 심화

< 양국 간 교역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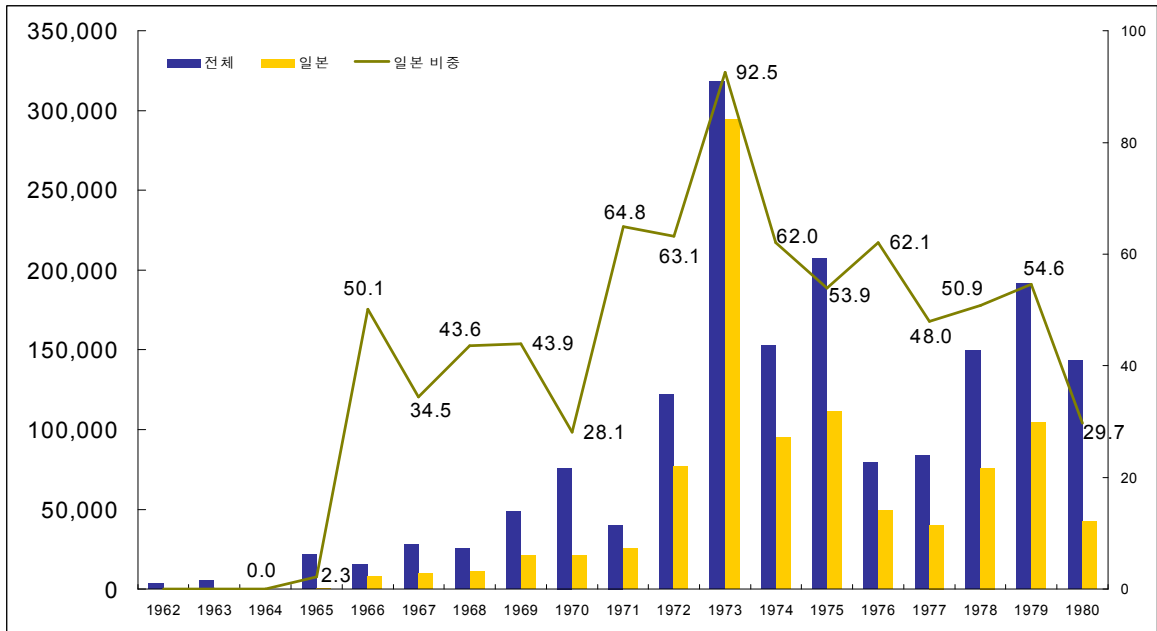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무역협회.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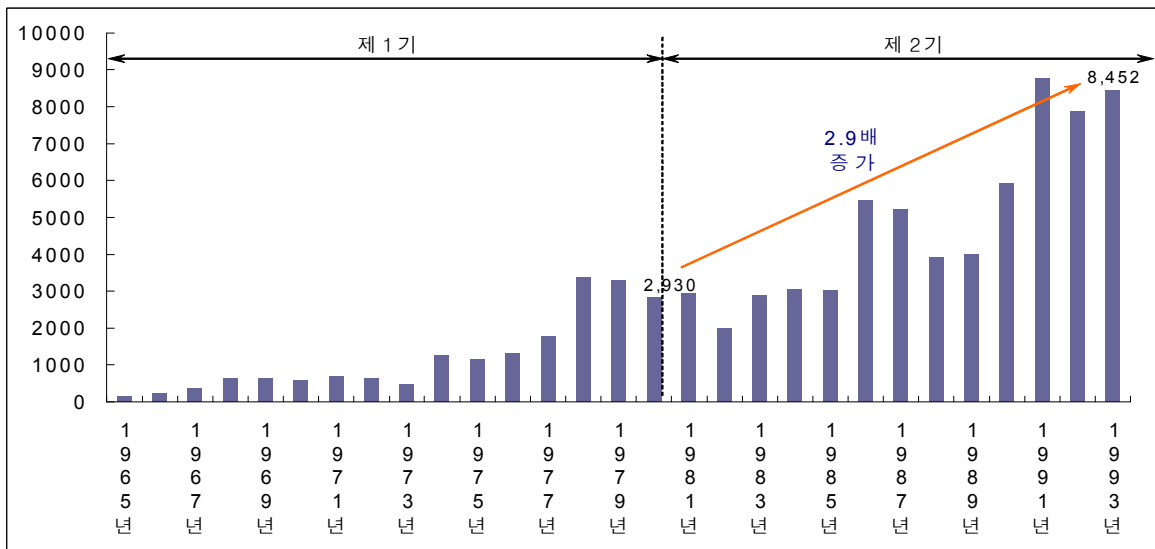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제2기 무역역조 심화기(1981~1993년) : 1981~1993년은 한일 양국 간 교류는 한국의 대일 기술 및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무역역조 심화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대립이 부각
 - 대일 자본재 의존도 심화 : 1988년에는 전체 자본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47%까지 상승하는 등 압축 성장을 지속하던 이 시기에 자본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급상승함
 - 대일 기술 의존도 심화 : 대일 기술 도입 금액은 1980년 2,820만 달러에서 1993년 3억 5,290만 달러로 12.5배 증가하였으며, 대일 기술 수입 비중 또한 26.3%에서 37.3%까지 상승함¹⁾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가속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양국 간 교류 제1기 말인 1980년 29.3억 달러에서 1993년 84.5억 달러로 급증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추이(1965~1993년)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일 자본재 수입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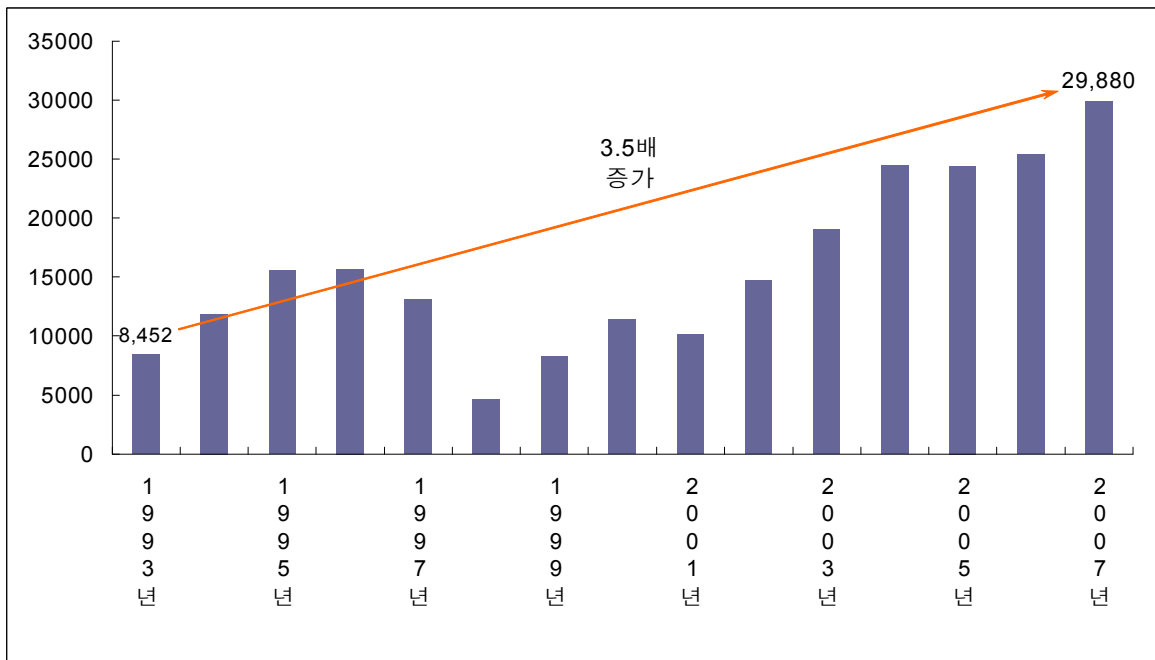
구분	1988년	1993년	2000년	2005년	2007년
전체 수입 규모	19,097	30,679	64,578	90,662	101,237
대일 수입 규모	8,968	11,920	19,623	24,771	25,264
대일 수입 비중	47.0	38.9	30.4	27.3	23.8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 년도 참조.

- 제3기 교류 침체기(1994~2007년) : 이 시기는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되면서 주요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한일 FTA 표류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침체되었던 시기임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가속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993년 84.5억 달러에서 2007년 298.8억 달러로 3.5배 증가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추이(1993~2007년)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 심화 : 한일 양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 상품을 중심으로 CA지수²⁾를 구하여 비교해 보면, 2000년대 들어 양국 간 CA 지수의 절대적인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더욱이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85번과 90번 산업이 비교우위로 변화되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84번이 일본의 비교우위로 변화되는 등 주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CA = (RX_i/RX)/(RE_i/RE)$, 단 RX_i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i 상품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총 수출액, RE_i 는 상대지역의 i 상품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 수입액을 나타냄. CA지수는 발라사의 RCA지수를 변형시킨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비교우위지수로 활용됨. 특정지역의 수입구조를 분모로 하는 CA지수는 동지역에서 여러 국가의 비교우위를 비교하는 경우 동일한 분모가 의미하는 동일한 시장조건 하에서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지역에서의 국가 간 비교우위의 비교 지표로는 타당성을 가짐. 단, 특정국의 비교우위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수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가 있음. 심영섭·윤재형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권역별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1995년, pp17~18.

< 중국 및 미국 시장에서의 한일 CA지수 추이 >

구분			84	85	87	90	91
중국 시장	2000년	한국	0.720	0.824	0.564	0.224	0.044
		일본	1.277	1.141	2.375	1.742	0.607
	2005년	한국	1.075	1.028	2.800	1.141	0.097
		일본	1.452	0.916	2.651	0.953	0.520
	2007년	한국	0.935	1.124	1.580	1.603	0.057
		일본	1.429	0.963	2.734	0.743	0.474
미국 시장	2000년	한국	1.646	2.027	1.096	0.421	0.111
		일본	1.445	1.434	2.243	2.528	0.182
	2005년	한국	1.111	2.221	2.149	0.679	0.062
		일본	1.624	1.267	3.090	1.984	0.111
	2007년	한국	1.241	1.911	2.180	1.478	0.048
		일본	1.572	1.125	3.624	1.689	0.071

원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84는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7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0은 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은 시계와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산업 분류는 HS코드 기준임.

- **한일 FTA 표류** :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는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채 2007년 말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등 한일 FTA가 표류 상태임
- **한일 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대립 심화** :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쿠릴열도 조업 문제 등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대립이 심화됨
- **양국 간 정치·외교적 협력 기반 약화** :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 세대교체로 양국 간 정치·외교적 협력 기반이 약화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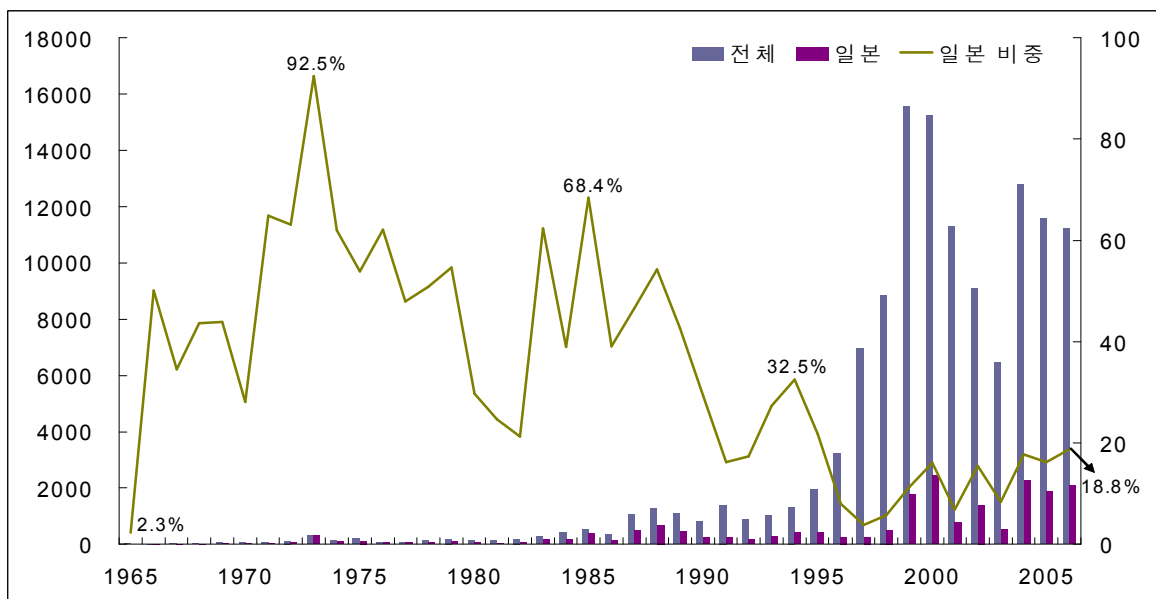
○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축소)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교역 규모의 확대라는 큰 성과를 얻었으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음

3) 전진호, 「21세기 한일관계의 현안과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집, 2005년, pp.97~100 참조.

- 양국 간 교역 규모의 확대 : 1965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은 약 30년이 지난 2007년에는 826억 2천만 달러로 약 376배나 증가
- 양국 간 교류의 문제점 양산 : 반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교류가 지속되면서 최근 대일 무역역조 현상의 심화, 일본의 대한 투자 감소, 산업기술협력의 약화, 한일 FTA 표류,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불신 고조,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의 약화 등의 문제점들을 양산
 - 대일 무역역조 현상 심화 : 1965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일 무역역조 규모가 2007년에는 298.8억 달러로 약 230배나 증가하는 등 대일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일본의 對韓 투자 감소 : 전체 對韓 외국인 투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1973년 92.5%에서 1985년에는 68.4%, 1994년 32.5%로 낮아지다 2006년에는 18.8%까지 하락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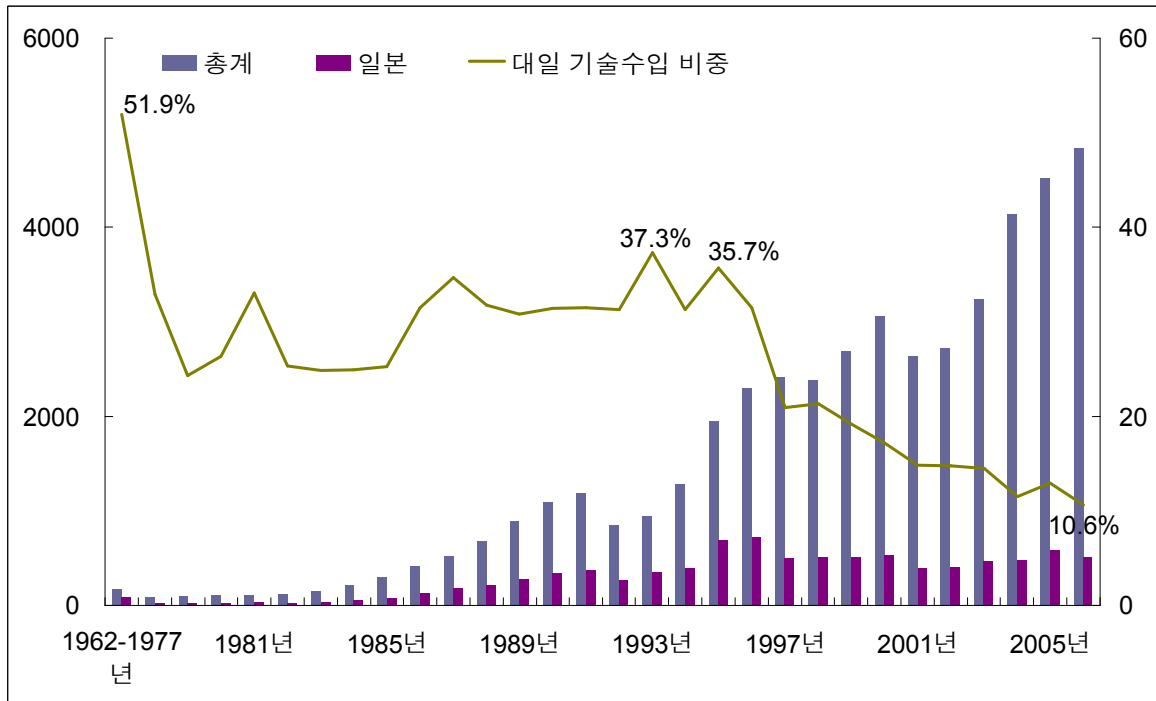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산업기술협력의 약화 : 한국의 전체 기술수입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1977년까지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995년에는 35.7%까지 하락하였으며 2006년에는 10.6%에 불과

< 한국의 대일 기술수입 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통계청.

- **한일 FTA 표류** :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는 일본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 개방, 한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분야가 쟁점화되면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채 2007년 말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등 한일 FTA가 표류 상태임
-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불신 고조** : 코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등학교교과서 검정 문제, 독도 문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진 등 민족주의 문제 대두로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의 약화** :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 세대교체, 한일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경제인 교류 약화, 양국 간 기술 협력 약화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술 인력 교류의 약화 등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가 약화되고 있음

2.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패러다임의 형성

- (기본 방향 : 한일 양국 경제의 상호 번영의 추구) 향후 양국 교류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한일 양국 경제의 상호 번영의 추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 확대가 필요함
- (전략)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단계적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시장 통합 기반 조성, 인적 교류 활성화, 대북 경제 협력 강화, 양국 간 공통의 역사관 정립 등의 전략 추진이 시급
 - 무역수지 적자 문제의 해소 :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양국 교류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
 - 시장 규모 확대 지향형 경제 협력 체제 구축 : 한일 양국 인구는 약 1억 7,500만 명(한국 4,800만 명, 일본 1억 2,700만 명)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FTA 등에 의한 시장 규모의 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향후 양국 간 교류는 시장 규모 확대 지향형 경제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
 - ‘한일 부품소재협력특구’의 조성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일 의존도 심화 때문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따라서 ‘한일 부품소재협력특구’와 같은 양국 간 부품소재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부품소재협력특구지원단’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한일 양국 간 동 분야 투자 교류는 물론 인적 기술적 교류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 단계적 시장 개방 : 양국 간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한일 FTA와 같은 시장 통합이 필요할 것이나, 일본의 농업부문이나 한국의 중소기업 부문과 같은 상호 시장 개방에 따르는 부작용이 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4) 2007년 추정치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년.

- **인적 교류의 활성화** : 양국 간 교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적 교류의 활성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교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등을 꾀해야 할 것임
 - **청년층 교류 활성화** : 양국 대학 간 공동연구의 활성화, 학점 상호 인정제도의 확산 등 교육 교류 확산,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산을 위한 펀드 조성, 문화투어프로그램 도입 등 청년층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기술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북 경제 협력 강화** : 한편 한일 양국은 북한의 개방 가속을 통한 역내 정치·외교적 안정을 위한 대북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북경제협력체널’ 구축** : 대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공조 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대북 경협 펀드’의 조성** : 가칭 ‘대북 경협 펀드’ 양국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개인 투자자 등의 참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통의 역사관 정립** : 한일 양국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간 공통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 :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영토 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양국 간 현안 과제이므로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타 협력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 대응해야 할 것임
 - **‘아시아 역사문제연구회’ 조직** : 양국 간 협력을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킴으로써 아시아 역내에서의 공통의 역사관 정립이 가능하도록 ‘아시아 역사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3.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 (방일 기간 중 주요 협의 사항) 한일 양국 간 교류의 새로운 장 마련을 위해서는 이번 이 명박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 미래실용주의 선언, 미래한일위원회 구성, 역사연구회 활성화의 3대 과제에 대한 협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래실용주의 선언** : 한일 양국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교류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공동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에서 이념을 분리시킴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임

- **미래한일위원회 구성** : 미래 지향적인 실용주의 교류 확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가칭 '미래한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의 공통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정신대와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수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역사연구회 활성화** : 과거사 인식이 양국 간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 '역사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공통된 역사관 정립이 중요함

· **역사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 : 특히 역사연구회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인식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 작업 결과에 대해 공동 영상프로그램을 제작, 공중파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공통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일 양국은 가칭 '동북아 미래 포럼' 구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꾀해야 할 것임

· 특히, 한중일 FTA,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 동북아 통화 협력과 같은 과제들을 '동북아 미래 포럼'에서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급등세 지속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3월 생산자물가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급등추세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기온상승에 따른 출하증가로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등이 내렸으나, 공급 감소로 곡물류, 축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1.9% 상승하였으며, 2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공산품은 국제투기자본의 원자재 시장 유입으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미달러 원화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및 담배,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2.3% 상승하였음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한 생산자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도 시차를 두고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2월	3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5.1	4.2(0.8)	5.0	4.0(1.0)	4.9(1.7)	5.1(1.5)	5.7(1.6)	-	-
		소비재판매	4.1	3.0	5.3	5.7	4.2	7.1	4.5	3.0	-
		설비투자추계	8.9	6.4	8.6	12.8	11.9	0.7	9.2	-1.9	-
		건설수주	9.0	27.1	19.3	26.3	26.3	-5.6	29.5	-6.2	-
		수출	14.4	13.8	14.1	14.6	14.1	9.4	18.2	18.8	19.1
	공급	광공업생산	8.3	4.6	6.8	4.0	6.2	6.0	11.0	10.1	-
		취업자수 (만명)	2,315	2,330	2,343	2,284	2,370	2,361	2,358	2,288	-
		실업률 (%)	3.5	3.2	3.2	3.6	3.2	3.1	3.0	3.5	-
		수입	18.4	13.0	15.3	13.4	14.7	7.3	25.9	27.6	25.9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1	60	-17	0.3	44	32	-24
무역수지 (억\$)	161		75	146	24	50	45	27	-12	-7	
물가	소비자물가	2.2	2.2	2.5	2.1	2.4	2.3	3.3	3.6	3.9	
	생산자물가	2.3	2.0	2.7	1.8	2.5	2.0	4.3	6.8	8.0	
	생산재물가	4.8	1.8	4.7	2.1	3.3	2.5	11.1	19.3	-	
	최종재물가	0.5	0.4	1.1	0.3	1.1	0.6	2.5	3.5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제 금리 급락

○ (해외 금융 시장) 채권시장 불안

- 금리: 주초반 급등세를 보이다가 IMF의 미국 경제상장률 전망 하향 조정(1.5% → 0.5%) 등의 영향으로 미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1/4분기 금융기관 실적악화 우려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반등하면서 전주말대비 대폭 상승 (국채 10년물 : 3.44 → 3.54%)
- 환율: 달러화는 G7회의에서의 외환시장 공조개입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는 가운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소폭 약세를,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강세 시현 (\$/€ : 1.5738 → 1.5742, ¥/\$: 101.48 → 101.95)

○ (국내 금융 시장) 국제 금리 급락

- 주가: 주초반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1,754.7p까지 하락하였으나, 총선 이후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확대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1,766.5 → 1,779.7)
- 금리: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의 경기 둔화 우려 발언 등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14 → 4.94%)
- 환율: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약세 및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및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 등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973.8 → 975.7)

○ (전망) 금리의 단기 급락에 따른 조정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4.4	4.11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766.5	1,779.7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14	4.94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973.8	975.7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2,609	12,582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293	12,945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3.44	3.54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28	1.34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738	1.5742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1.48	101.95
	두바이(\$/바렐)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96.96	102.5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10) 기준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외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외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외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